

## 대한민국 미래 앞으로! 국민 희망 제대로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 출범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의 조직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에 “미래희망단”으로 조직의 중심에 결합했다.
- 이 날 출범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축사,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의 축사, 미래희망단 책임의원인 이병훈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수석부분부장, 지도의원인 설훈 국회의원, 공보단장 박광은 국회의원, 국가비전국민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고, 조직본부 조직상황실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야한다는 이낙연 전)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중심에 역할을 든든히 해줄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이낙연 대표님과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찬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데 '미래희망단'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지켜온 여러분들이 민주당 정권재창출의 기수가 되어달라"며 격려하고, "늘 큰힘이 되었던 소중한 분들, 고마운 동지들에게 떡떡한 감사와 17개 시도와 253개 지역 곳곳에서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깊고 두터운 믿음을 전하며 '미래희망단'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 특히, 이 위원장은 책임의원인 이병훈 의원과 지도위원인 설훈·박광은 국회의원, 그리고 미래희망단 이관행 총괄단장을 비롯한 중앙단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참석한 미래희망단 전국단장과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 단장들에게 각별함을 나타냈다. 미래희망단을 이끌어갈 이관행 총괄단장은 "민주당의 자랑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와 성과를 제대로 이어갈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에서 나와야한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민주당다운 대선승리를 위해 우리가 다시 뭉쳐 더 노력하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 미래희망단의 첫시작을 함께한 리더 500여명은 이 상임고문이 경선 후 전국을 다니며 탈당과 타당후보 지지등 흩어지려는 지지그룹과 당원들에게 전한 위로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바깥 울타리를 지켜내려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와 뜻을 담은 행보'에 공감한 사람들로 미래희망단 출범식 후 다양한 공식 활동을 통한 대선승리 초석은 물론, 조직과 함께 캠페인 등 대선 활동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2022. 1. 17.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대외협력팀**